

# 간호대학생의 학습 자기효능감, 기본간호술수행자신감 및 실습만족도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현숙<sup>1</sup>, 안성미<sup>2\*</sup>

<sup>1</sup>경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sup>2</sup>동남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The Influence of Learning Self-efficacy, Confidence in Performance of Fundamental Nursing Skills and Satisfaction with Practicum on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in major

Hyunsook Zin Lee<sup>1</sup>, Sung Mi Ahn<sup>2\*</sup>

<sup>1</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dong University,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nam Health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자료수집은 2019년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G도 및 C도에 소재한 2개 간호대학생 15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t-test, one-way ANOVA, Pearson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성별, 연령, 종교 활동, 성적, 간호술기술 습득에 도움이 되는 방법, 자신의 건강상태는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전공만족도는 학습 자기효능감, 기본간호술수행자신감, 실습만족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으며,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63.0%이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증진을 위해 학습 자기효능감, 기본간호술수행자신감, 실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검증이 필요하다.

**주제어** : 학습 자기효능감, 기본간호술수행자신감, 실습만족도, 전공만족도, 간호대학생

**Abstract** The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in major on nursing students. A convenience sample 159 nursing student was selected from G do and C do, between 17 June and 24 June 2019. Data were analyzed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actors that influenced satisfaction in major included gender, age, religion,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acquisition of fundamental nursing skills(FNS), perceived health state. Satisfaction in major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learning self-efficacy(LSE), confidence in performance of FNS and satisfaction with practicum. These variables revealed regression analysis that significant factor and explained 63.0% of the varianc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test programs to ensure an improvement in LSE, confidence in performance of FNS and satisfaction with practicum among nursing students to increase their satisfaction in major.

**Key Words** : Learning Self-efficacy, Confidence in Performance of Fundamental Nursing Skill, Satisfaction with Practicum, Satisfaction in Major, Nursing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 Sung Mi Ahn(pigletasm@hanmail.net)

Received October 22, 2019

Accepted April 20, 2020

Revised April 3, 2020

Published April 28, 2020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 사회는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직업과 취업률과 같은 외재적 가치로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1]. 특히 간호대학생의 경우 대학진학과 동시에 진로의 방향이 간호사로 이미 결정되어진다는 부분에서 타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간호사가 되기 위해 취업률이 용이하다고 알려진 간호학 전공을 희망하여 간호학과 지원율이 높아지고 있다.

전공만족도란 개인의 전공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수준과 주변사람들에 의한 평가 정도를 의미한다[2]. 간호대학생 중에는 취업률과 다른 가치에 의해 전공을 선택하여 전공과 적성의 불일치를 보이며, 자기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학생들을 많이 보게 된다[3]. 이처럼 전공에 대한 충분한 탐색과 적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과중한 간호학과 전문교육 과정에 들어간다면, 전공만족도가 낮아지고, 성적저조, 부적응, 자퇴나 졸업 후 전공 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4]. 그뿐 아니라 간호대학생의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게 되면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충분하게 갖추지 못한 간호 인력이 배출되어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 받게 되는 것이다[1]. 여러 사회적으로 간호학 전공 지원자의 수가 증가되는 양상을 고려할 때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급속하게 변화하고 다양해진 의료 환경과 간호현장에서는 임상상황에 맞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이 요구되고 있다[5]. 이와 관련하여 간호교육은 간호사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이 적용되어지고 있으며,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핵심기본간호술을 제시하여 간호대학생의 성취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6]. 대부분의 간호 교육기관에서 기본간호술 교육은 저학년인 1~2학년을 대상으로 교내의 기본간호학실습 교과목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7]. 간호대학생이 입학 후 교양과목 위주로 공부하다가 전공실습의 첫 과정인 기본간호실습에 임하게 되면 생소한 기본간호술로 인해 긴장감, 걱정, 부담감, 낮은 전공만족도 등의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간호술 학습은 저학년부턴 졸업시점까지 지속적으로 간호대학생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와 목표지향적인 학습을 요구하게 된다[8].

학습 자기효능감은 학업수행 과정을 스스로 조절해나가는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효능감으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9]. 특히 간호대학생은 전공과정 동안 간호 상황에 대해 스스로 학습하고, 탐구하는 방법을 익히고, 간호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전문가의 사고를 학습하면서 학습만족도가 증가하게 된다[10]. 전공만족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은 교과영역이며[25], 학습 자기효능감은 교과영역에서 학습만족도를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한 기본간호술수행자신감은 간호대학생이 기본간호술을 수행할 때 자신의 지식과 기술에 대한 믿음으로 기본간호술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행자신감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11]. 여러 연구에서 학습 자기효능감과 수행자신감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11,12], 이들은 전공만족도와도 관련성이 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스스로 자기조절 학습과 보다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 학습 자기효능감과 기본간호술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외에도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실습만족도가 중요하다. 간호대학생의 기본간호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실습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간호문제에 맞는 적절한 고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게 되므로 중요하다고 하였다[13]. 이에 저학년 간호대학생의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교내실습의 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은 이후 임상실습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전공만족도가 높을 때 진로에 대한 자기 생각이 분명하게 나타나 진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갖게 되며[14], 자신의 진로를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15].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교내실습에서의 만족도와 전공만족도와의 관계보다 임상실습의 만족도와 전공만족도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16-18].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이 이루어지기 전, 교내실습이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내실습에서의 실습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앞으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전공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이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학습 자기효능감, 기본간호술수행자신감, 실습만족도와 관련성이 있는지 규명하고 전공만족도에 이들 변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

용될 것이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학습 자기효능감, 기본간호술수행자신감, 실습만족도 및 전공만족도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 자기효능감, 기본간호술수행자신감, 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학습 자기효능감, 기본간호술수행자신감, 실습만족도, 전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학습 자기효능감, 기본간호술수행자신감, 실습만족도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습 자기효능감, 기본간호술수행자신감, 실습만족도, 전공만족도의 정도를 파악하고, 학습 자기효능감, 기본간호술수행자신감 및 실습만족도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도 및 C도 소재의 2개 간호학과 재학생 중 기본간호학실습 교과목을 2019년도 1학기까지 2개 학기에 걸쳐 이수하였으며,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85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최소 대상자 수를 산출한 결과 144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참여에 서면 동의한 총 170명의 대상자 중 답변 내용이 부실한 11명의 설문지를 제외 한 159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 2.3 윤리적고려

본 연구의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연구 시작 전 연구의 목적과 방법, 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보장, 연구 도중 언제라도 철회 가능성 등

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 여부는 자발적이며, 참여에 동의한 경우 자필로 서명 후 참여하도록 하였다. 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연구자만 자료를 열람하고, 자료수집과 분석 시 코드를 부여하였다.

### 2.4 연구도구

#### 2.4.1 학습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학습 자기효능감은 학습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개인의 신념으로 보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Ayres(2005)[19]가 개발하고 Park과 Kweon[20]이 번안한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7점 likert 척도이다. 이를 Kim과 Kim[5]이 5점 likert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4이었으며, Kim과 Kim[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8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0이었다.

#### 2.4.2 기본간호술수행자신감

본 연구에서 기본간호술수행자신감이란 한국간호교육평가원[21]에서 제시한 20개 항목 중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5개 항목(수혈요법, 수술 전 간호, 수술 후 간호, 말초산소포화도 측정과 심전도 모니터 적용, 기본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적용)을 제외한 15개 항목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스스로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5점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4이었다.

#### 2.4.3 실습만족도

본 연구에서 실습만족도란 간호대학생이 수강태도, 강의준비, 강의진행 및 내용, 평가 등에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도로 보았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Yoo와 Yoo[22]가 개발하고, Chang과 Park[23]이 총 17문항, 5점 likert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실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4이었으며, Chang과 Park[2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9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6이었다.

#### 2.4.4 전공만족도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현재 자신이 속한 학과를 비교하고 평가

하는 판단과정의 산물로[24] Illinois 대학에서 개발한 Program Evaluation Survey를 Kim과 Ha[24]가 수정·보완한 도구는 총 27문항이다. 이를 Kim과 Lee[25]가 전공학과 학문에 대한 '일반만족' 7문항, '인식만족' 5문항, '교과만족' 3문항, 교수-학생 간의 '관계만족' 3문항의 총 18문항, 4개의 하위요인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Kim과 Ha[2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2이었다. Kim과 Lee[2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1이었다.

## 2.5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제공 후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10분 정도였다.

## 2.6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 21.0 ver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량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 자기효능감, 기본간호술수행자신감, 실습만족도, 전공만족도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고 사후검증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들의 학습 자기효능감, 기본간호술수행자신감, 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159명으로 남자가 15명(9.4%), 여자가 144명(90.6%)이고 연령대는 20대가 143명(89.9%), 30대 이상 16명(10.1%)이었다. 간호학과 입학 동기는 '스스로 적성에 맞아서'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이 79명(49.7%)으로 '높은 취업률 때문에' 55명(34.6%), '부모님과 선생님의 권유로' 20명(12.6%), '해외 취업 외' 5명(3.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활동은 '꾸준히 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은 17명

(10.7%), '거의하지 않는 편'이 109명(68.6%)이었고,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131명(82.4%), '전문대학교 이상 졸업'이 28명(17.6%)이었다. 성적은 '상' 24명(15.1%), '중' 98명(61.6%), '하' 37명(23.3%)라고 인식하였다. 실습동료와의 관계는 '만족했다' 121명(76.1%), 간호술기술 습득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자율실습실을 이용하여 복습한다' 95명(59.7%)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건강한 편'으로 인식하는 대상자들은 101명(63.5%), '보통' 42명(26.4%), '허약한 편' 16명(10.1%)이었다.

## 3.2 학습 자기효능감, 기본간호술수행자신감, 실습만족도 및 전공만족도의 정도

본 대상자의 학습 자기효능감, 기본간호술수행자신감, 실습만족도 및 전공만족도를 살펴보면, 학습 자기효능감은  $3.42 \pm 0.60$ 점, 기본간호술수행자신감은  $3.56 \pm 0.69$ 점, 실습만족도는  $4.02 \pm 0.62$ 점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의 일반만족은  $3.97 \pm 0.66$ 점, 인식만족은  $4.23 \pm 0.65$ 점, 교과만족은  $3.56 \pm 0.79$ 점, 관계만족은  $3.56 \pm 0.88$ 점, 전체  $2.97 \pm 0.57$ 점으로 나타났다. Table 1 참고.

Table 1. The level of Learning Self-efficacy, Confidence in Performance of Fundamental Nursing Skills, Satisfaction with Practicum, and Satisfaction in Major (N=159)

Variables	M $\pm$ SD	Mini	Max	Range
Learning self-efficacy	3.42 $\pm$ 0.60	1.90	5.00	1-5
Confidence in performance of fundamental nursing skills	3.56 $\pm$ 0.69	2.00	5.00	1-5
Satisfaction with practicum	4.02 $\pm$ 0.62	2.23	5.00	1-5
Satisfaction in major	2.97 $\pm$ 0.57	1.66	4.16	1-5
General satisfaction	3.97 $\pm$ 0.66	2.00	5.00	1-5
Social perception satisfaction	4.23 $\pm$ 0.65	2.40	5.00	1-5
Curriculum satisfaction	3.56 $\pm$ 0.79	2.00	5.00	1-5
Relationship satisfaction	3.56 $\pm$ 0.88	1.00	5.00	1-5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 자기효능감, 기본간호술수행자신감, 실습만족도 및 전공만족도

본 대상자의 학습 자기효능감, 기본간호술수행자신감, 실습만족도 및 전공만족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았다. Table 2 참고.

학습 자기효능감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 $t=-2.334, p=.021$ ), 연령은 30대가 20대인 대상자들보

Table 2. The level of Learning Self-efficacy, Confidence in Performance of Fundamental Nursing Skills, Satisfaction with Practicum, and Satisfaction in Major with Practicum, and Satisfaction in Major (N=15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Learning Self-efficacy		Confidence in performance of fundamental nursing skills		Satisfaction with practicum		Satisfaction in major	
			M±SD	t / F(p) (Sheffe)	M±SD	t / F(p) (Sheffe)	M±SD	t / F(p) (Sheffe)	M±SD	t / F(p) (Sheffe)
Gender	Male	15(9.4)	3.08±0.69	-2.334	3.35±0.82	-1.275	3.40±0.53	-4.251	3.52±0.56	-2.640
	Female	144(90.6)	3.46±0.58	.021 <sup>*</sup>	3.58±0.67	.204	4.08±0.59	.000 <sup>*</sup>	3.94±0.58	.009 <sup>*</sup>
Age(Years)	20s	143(89.9)	3.32±0.53	-7.384	3.49±0.66	-4.231	3.95±0.60	-4.578	3.85±0.58	-3.563
	30s	16(10.1)	4.33±0.32	.000 <sup>*</sup>	3.95±0.56	.000 <sup>*</sup>	4.66±0.45	.000 <sup>*</sup>	4.39±0.51	.000 <sup>*</sup>
Motivation of department choice	Because of own aptitude	79(49.7)	3.52±0.57	2.259 .084	3.68±0.69	2.435 .067	4.05±0.65	.961 .413	3.99±0.61	1.393 .247
	High employment rate	55(34.6)	3.45±0.69		3.59±0.62		4.09±0.49		3.91±0.53	
	Recommendation by patents and teacher	20(12.6)	3.26±0.59		3.37±0.66		3.92±0.61		3.78±0.59	
	Overseas expansion others	5(3.1)	3.58±0.52		3.81±0.82		4.30±0.74		4.00±0.58	
Religion	Steady activity <sup>a</sup>	17(10.7)	4.30±0.66	26.976 .000 <sup>*</sup> (a>b,c)	4.31±0.55	12.653 .000 <sup>*</sup> (a>b,c)	4.63±0.47	10.937 .000 <sup>*</sup> (a>b,c)	4.58±0.34	14.667 .000 <sup>*</sup> (a>b,c)
	Average <sup>b</sup>	33(20.7)	3.32±0.49		3.48±0.76		4.05±0.65		3.88±0.64	
	Almost no activity <sup>c</sup>	109(68.6)	3.42±0.60		3.47±0.61		3.91±0.58		3.81±0.54	
Education at the time of admission	High school	131(82.4)	3.39±0.56	-1.614 .108	3.54±0.61	-1.004 .317	4.02±0.59	.119 .905	3.91±0.56	.027 .979
	Over the college	28(17.6)	3.59±0.73		3.68±0.97		4.01±0.77		3.90±0.73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High <sup>a</sup>	24(15.1)	4.15±0.57	32.509 .000 <sup>*</sup> (a>b,c)	4.42±0.54	32.669 .000 <sup>*</sup> (a>b,c)	4.71±0.34	23.096 .000 <sup>*</sup> (a>b,c)	4.71±0.26	42.543 .000 <sup>*</sup> (a>b,c)
	Average <sup>b</sup>	98(61.6)	3.37±0.49		3.47±0.59		3.93±0.57		3.82±0.51	
	Low <sup>c</sup>	37(23.3)	3.10±0.48		3.25±0.58		3.80±0.60		3.60±0.48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ied <sup>a</sup>	121(76.1)	3.46±0.61	1.060 .349	3.62±0.67	2.129 .122	4.08±0.64	2.599 .036 (a>c)	3.96±0.60	1.846 .161
	Neutral <sup>b</sup>	36(22.6)	3.33±0.55		3.39±0.72		4.00±0.24		3.74±0.55	
	Dissatisfied <sup>c</sup>	2(1.3)	3.05±0.70		3.06±0.65		3.81±0.53		3.80±0.03	
Acquisition of fundamental nursing skills	Watching videos at home <sup>a</sup>	48(30.2)	3.34±0.56	.660 .518	3.55±0.61	5.125 .019 <sup>*</sup> (b>c)	3.77±0.68	5.857 .004 <sup>*</sup> (b>a)	3.69±0.57	4.517 .012 <sup>*</sup> (b>a,c)
	Open Laboratory <sup>b</sup>	95(59.7)	3.46±0.58		4.05±1.04		4.22±0.67		4.00±0.57	
	Through learning in class <sup>c</sup>	16(10.1)	3.45±0.78		3.43±0.63		4.11±0.55		3.89±0.66	
Perceived health state	High	101(63.5)	3.47±0.59	5.985 .003 <sup>*</sup> (a,b>c)	3.57±0.65	4.735 .010 <sup>*</sup> (a,b>c)	4.11±0.57	9.493 .000 <sup>*</sup> (a,b>c)	4.01±0.57	8.749 .000 <sup>*</sup> (a,b>c)
	Average	42(26.4)	3.50±0.62		3.71±0.72		4.03±0.64		3.85±0.60	
	Low	16(10.1)	2.95±0.31		3.10±0.65		3.41±0.53		3.38±0.36	

다 높았다( $t=-7.384, p<.001$ ). 사후검정 결과, 종교 활동을 꾸준히 하는 대상자들이 보통이나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보다 높았고( $F=26.976, p<.001$ ), 스스로 성적을 '상'이라고 인식한 대상자들이 '중'이나 '하'라고 인식한 대상자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F=32.509, p<.001$ ). 자신의 건강상태를 '건강한 편'과 '보통'으로 인식하는 대상자들이 '허약한 편'으로 인식한 대상자들보다 학습 자기효능감이 더 높았다( $F=5.985, p=.003$ ). 기본간호술수행자신감은 연령이 30대가 20대인 대상자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t=-4.231, p<.001$ ). 사후검정 결과, 종교 활동을 꾸준히 하는 대상자들이 보통이나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보다 높았고( $F=12.653, p<.001$ ), 스스로 성적을 '상'이라고 인

식한 대상자들이 '중'이나 '하'라고 인식한 대상자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F=32.669, p<.001$ ). 간호술기술 습득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자율실습실을 이용하여 복습한다'라고 한 대상자들이 '수업시간에 배운 정도로'라고 응답한 대상자들보다 더 높았다( $F=5.125, p=.019$ ). 자신의 건강상태를 '건강한 편'과 '보통'으로 인식하는 대상자들이 '허약한 편'으로 인식한 대상자들보다 기본간호술수행자신감이 더 높았다( $F=4.735, p=.010$ ). 실습만족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t=-4.251, p<.001$ ), 연령이 30대인 대상자들이 20대보다 높았다( $t=-4.578, p<.001$ ). 사후검정 결과, 종교 활동을 꾸준히 하는 대상자들이 보통이나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보다 실습만족도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of Learning Self-efficacy, Confidence in Performance of Fundamental nursing skills, Satisfaction with Practicum, and Satisfaction in Major (N=159)

Variables	Learning Self-efficacy	Confidence in performance of fundamental nursing skills	Satisfaction with practicum	Satisfaction in major
	r(p)	r(p)	r(p)	r(p)
Learning Self-efficacy	1			
Confidence in performance of fundamental nursing skills	.556** ( $<.001$ )	1		
Satisfaction with practicum	.555** ( $<.001$ )	.547** ( $<.001$ )	1	
Satisfaction in major	.578** ( $<.001$ )	.571** ( $<.001$ )	.767** ( $<.001$ )	1

가 높았으며( $F=10.937, p<.001$ ), 스스로 성적을 '상'이라고 인식한 대상자들이 '중'이나 '하'라고 인식한 대상자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F=23.096, p<.001$ ). 실습동료와의 관계에서 만족했던 대상자들이 불만족했던 대상자들보다 실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F=2.599, p=.036$ ). 간호술 기술 습득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자율실습실을 이용하여 복습 한다'라고 한 대상자들이 '집에서 동영상 시청한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들보다 실습만족도가 더 높았다( $F=5.857, p=.004$ ). 자신의 건강상태를 '건강한 편'과 '보통'으로 인식하는 대상자들이 '허약한 편'으로 인식한 대상자들보다 실습만족도가 더 높았다( $F=9.493, p<.001$ ). 전공만족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t=-2.640, p=.009$ ), 연령은 30대가 20대인 대상자들보다 높았다( $t=-3.563, p<.001$ ). 사후검정 결과, 종교 활동을 꾸준히 하는 대상자들이 보통이나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보다 전공만족도가 높았고( $F=14.667, p<.001$ ), 스스로 성적을 '상'이라고 인식한 대상자들이 '중'이나 '하'라고 인식한 대상자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F=42.543, p<.001$ ). 간호술기술 습득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자율실습실을 이용하여 복습 한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이 '집에서 동영상을 시청한다'와 '수업시간에 배운 정도로'라고 응답한 대상자들보다 전공만족도가 더 높았다( $F=4.517, p=.012$ ). 자신의 건강상태를 '건강한 편'과 '보통'으로 인식하는 대상자들이 '허약한 편'으로 인식한 대상자들보다 전공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F=8.749, p<.001$ ).

### 3.4 학습 자기효능감, 기본간호술수행자신감, 실습만족도 및 전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연구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3 참고.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다른 변수간의 관계는 학습 자기효능감이 좋을수록( $r=.578, p<.001$ ), 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이 높을수록( $r=.571, p<.001$ ), 실습만족도가 좋을수록( $r=.767, p<.001$ ) 전공만족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 3.5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습 자기효능감, 기본간호술수행자신감, 실습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Table 4 참고.

Table 4.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in Major (N=159)

Variables	B	S.E.	$\beta$	t	p
Constant				9.158	.000
Learning Self-efficacy	.161	.062	.163	2.607	.010
Confidence in performance of fundamental nursing skills	.136	.054	.157	2.538	.012
Satisfaction with practicum	.565	.059	.591	9.536	.000
R <sup>2</sup> =.637, Adj.R <sup>2</sup> =.630, F=90.686, p<.001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인 잔차의 정규분포 여부, 선형성, 등분산성을 검정하기 위해 잔차의 산포도와 정규 확률 그래프를 확인하였다. 잔차는 45도 직선에 근접하고, 잔차의 분포가 0을 중심으로 고르게 퍼져 있었다. 다중공선성을 검정하기 위한 공차한계(Tolerance)는 .601-.610 이었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639-1.664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은 충족되었으며, 전공만족도를 예측하는 모형에 대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입력방법(enter method)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을 때, F 통계값은 90.686, 유의확률은  $<.001$ 으로 유의하며, 전공만족도 총 변량의 63.0%를 설명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실습만족도가 전공

만족도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 = .591, p < .001$ ), 학습 자기효능감( $\beta = .163, p = .010$ ), 기본간호술수행자신감( $\beta = .157, p = .012$ )까지 세 변수 모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습 자기효능감, 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실습만족도 및 전공만족도 정도를 파악하고, 학습 자기효능감, 기본간호술수행자신감, 실습만족도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2학년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으로 학습 자기효능감은  $3.42 \pm 0.60$ 점(범위 1~5점)으로 임상실습을 경험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Kim과 Kim[5]의 연구(3.78점)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학습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편안한 환경 속에서 인지적 능력이 자유롭게 발휘되어 임상실무수행능력을 더 높일 수 있다[20]. 최근 간호대학생의 학습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수업방법과 학습법을 적용 후[26,27], 학습 자기효능감이 상승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임상실습 전 2학년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관련성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라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나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Kim과 Kang[11]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연령은 20대보다 30대 대상자의 학업 자기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연령을 구분하여 조사한 연구가 없어서 비교가 어렵다. 간호학의 경우 다른 전공에 비해 타 대학 졸업자가 간호대학으로 재입학하는 '유턴 입학'의 영향으로[28] 대학 입학 당시 전문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대상자가 많은[29] 부분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종교 활동을 꾸준히 하는 간호대학생의 학습 자기효능감은 Shim[30]의 연구와 동일하게 더 높았으며, Kim과 Kang[11]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개인적, 학과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스스로 성적을 '상'이라고 인식한 간호대학생의 학습 자기효능감이 다른 대상자보다 높았으며, 이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영향요인을 연구한 Ma와 Lee[3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학습 자기효능감은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사용하도록 학습자를 동기화하며, 학습 성취에 대

한 통제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10]. 즉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적을 고려한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상태를 '허약한 편'으로 인식한 간호대학생보다 다른 대상자들의 학습 자기효능감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신체적 건강과 학업, 실습과의 연관성은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정교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기본간호술수행자신감은  $3.56 \pm 0.69$ 점(범위 1-5점)으로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과 Kang[11]의 연구 3.75점보다 자신감이 더 낮았다. 반면 2학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의 수행자신감이 4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 등[31]의 연구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고학년의 기본간호술수행자신감이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저학년보다 항상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연령은 30대 대상자의 수행자신감이 20대 대상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기본간호술수행자신감은 Kim 등[31]의 연구에서 재교육을 통해 교육 후 증가되는 양상을 보여 교내실습교육은 연령, 학년에 국한하지 않고, 전 학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종교 활동에 따른 기본간호술수행자신감에 차이가 있었지만, 유사연구가 없어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반복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스스로 성적을 '상'이라고 인식한 대상자의 수행자신감이 Jung과 Kang[32]의 연구와 동일하게 다른 대상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성적이 기본간호술수행자신감을 높임을 알 수 있고, 실습교육 시 성적을 고려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반적 특성 중 간호술기술 습득에 도움이 되는 학습방법 중 '자율실습실을 이용하여'라는 응답을 한 대상자가 '수업에서 배운 정도로' 응답한 대상자보다 기본간호술수행자신감이 높게 나타났다. 자율실습은 기본간호학실습 수업에서 배운 간호술기를 반복학습 함으로 수행자신감과 수행능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34]. 이는 자율실습과 자신감의 관련성을 연구한 Park과 Choi[33]의 연구, Yun과 Choi[34]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본다. 앞으로도 자율실습 운영방법과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상태를 '허약한 편'으로 인식한 간호대학생의 기본간호술수행자신감이 다른 대상자들보다 더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주관적 건강상태와 기본간호술수행자신감을 구분하여 조사한 연구가 없어서 비교가 어렵지만, 교내실습 교육 시 건강상태가 허약한 대학생들은 개별적인 상담과 학습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실습만족도  $4.02 \pm 0.62$ 점 (범위 1~5점)으로 동일하게 2학년의 실습만족도를 조사한 Chang과 Park[35]의 연구 3.8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습만족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연령도 20대보다 30대가 눈에 띄게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종교 활동을 꾸준히 하는 대상자들의 실습만족도도 다른 대상자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성별과 연령, 종교와 관련된 연구결과는 교내실습만족도를 확인하는 연구뿐 아니라 임상실습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의 표본수와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이 연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남자 간호사들의 수요 증가로 간호학에 지원하는 남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며[36],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위하여 간호학과 전공 지원자의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29] 반복연구를 통해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스스로 성적을 '상'이라고 인식한 대상자와 실습동료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대상자의 교내실습 실습만족도가 다른 대상자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임상실습만족도를 확인하는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성적과 대인관계가 임상실습만족도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Lee와 Kim[16]의 연구, Yoo와 Choi[37]의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임상실습만족도는 성적과 동료와의 관계뿐 아니라 실습장소, 상황별 대처, 교과목별 실습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지만, 교내실습의 경우 개인적인 요인이 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변수를 포함한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 중 자신의 건강상태를 '허약한 편'으로 인식한 간호대학생의 실습만족도가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임상실습만족도를 조사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맥락을 보이는데 [16,38,39], 임상실습에서뿐 아니라 교내실습에서도 간호대학생의 신체적 건강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간호대학생이 저학년부터 스스로 건강과 학업의 균형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교내실습에서 임상실습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모두 실습만족도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일반적 특성 중 간호술기술 습득에 도움이 되는 학습방법 중 '자율실습실을 이용하여'라는 응답을 한 대상자가 '집에서 동영상을 통해 복습'으로 응답한 대상자보다 실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동영상 활용 학습이 성취도, 수행자신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실습만족도에는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어 본 연구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40, 41]. 자율실습은 간호대학생들이 기본간호술기를 개발된 실습실에서 교수의 지도 없이 스스로 학습을 하는 방법이다. 자율실습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기본간호술수행자신감과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33,34], 전반적인 실습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겠다. 이렇게 다양한 연구결과를 보임에 따라 추후 실습만족도와 관련한 자율실습에 관한 특성을 고려한 반복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2.97 \pm 0.57$ 점 (범위 1~5점)으로 나타났다. 1~4학년을 대상으로 실습만족도를 조사한 Kim과 Leel[25]의 연구는 3.64점, 3~4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Chae와 Jung[18]의 연구도 3.65점으로 선행연구보다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2학년과 임상실습이 이루어지는 3~4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의 차이를 통해 추후 학년별로 전공만족도를 비교하고, 관련변수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전공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15,42]. 그러나 남학생과 여학생의 전공만족도 수준이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 연구도 있으며[16], 남학생만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선택 시 남학생이 숙고를 통해 결정하게 되므로 전공만족도가 높다고[36] 보고한다. 이렇듯 간호사는 더 이상 여자만의 직업이 아닌 전문 직종으로 인식하고 간호학에 지원하는 남학생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만족도가 낮은 남학생들은 개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 중 연령은 30대가 20대보다 학습 자기효능감, 기본간호술수행자신감, 실습만족도뿐 아니라 전공만족도도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Cho와 Kim[4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공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선행연구도 있었다[15,16]. 연령이 높은 간호대학생들은 타학문 전공 후 신중한 결정을 통해 간호학에 입학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면에서 전공에 만족하며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령이 높으나 전공만족도 낮은 학생들은 이전 전공과 비교하여 원인을 찾고, 그들이 잘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일반적 특성 중 종교 활동을 꾸준히 하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다른 대상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종교와 전공만족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2,16,42]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는 단순히 종교의 유무, 종교의



종류에 따라 전공만족도가 어떠한지를 조사 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종교의 종류보다 종교 활동의 지속성에 따른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이 종교 활동의 지속성은 학습 자기효능감, 기본간호술수행자신감, 실습만족도와도 모두 관련성이 있었기에 추후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성의 여부를 꾸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스스로 성적을 '상'이라고 인식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다른 대상자보다 높았으며, 이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영향요인을 연구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15,16,42].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성적이 높은 대상자들의 전공만족도가 높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성적이 좋아서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인지, 전공만족도가 높아서 학업에 충실하게 되고, 그러한 부분이 성적을 높이는 영향으로 작용하는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허약한 편'으로 인식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다른 대상자들보다 더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2, 16]. 이런 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이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질병과 관련된 결석, 부적응 학생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이들을 따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 특성 중 간호술기술 습득에 도움이 되는 학습방법으로 '자율실습실을 이용하여'라는 응답을 한 대상자의 전공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학과에서 간호대학생을 위해 자율실습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대상자의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전공만족도는 환경적 요인뿐 아니라 일반적인 부분, 교과영역, 교수-학생 간의 관계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요인별 구체적인 관련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학습 자기효능감, 기본간호술수행자신감, 실습만족도간의 상관관계에서는 학습 자기효능감과 기본간호술수행자신감, 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 정도가 높아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특히 학습 자기효능감은 선행연구[43-45]와 유사하게 학습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높은 학습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전공에 대한 만족도까지 높아졌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기본간호술수행자신감도 수행자신감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기본간호술수행자신감에 관한 기존 연구는 수행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중재 시행 후 수행자신감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그 중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만 이루어져있다

[33,34,40,11,12]. 기본간호술수행자신감과 간호학 전공만족도의 관계성을 조사한 연구가 없어서 직접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임상실습이 이루어지기 전인 저학년을 대상으로 교내실습에서 기본간호술수행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전략과 노력은 전공만족도 증진으로 이어져 추후 고학년이 되어 임상실습 과정까지의 전공만족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전공만족도에는 교과만족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습교과목에 대한 만족은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는 대부분 임상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의 관계에 국한된 연구라 직접 비교는 어렵다. 또한 간호대학생 뿐 아니라 임상실습이 이루어지는 타 학문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에서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아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16,17,46,47]. 타 학문전공 대학생들에 관한 연구에서도 대부분 교내실습만족도보다 임상실습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교내실습은 임상실습이 이루어지기 전, 전공의 기초를 닦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내실습의 실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중재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어진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습 자기효능감과 기본간호술수행자신감, 실습만족도 세 변수 모두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으며, 그 설명력은 63.0%로 나타났다. 이 중 전공만족도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수는 실습만족도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에게 스스로 학습을 조절할 수 있는 학습 자기효능감과 기본간호술수행자신감보다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실습만족도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후 간호대학생의 학습 자기효능감, 기본간호술수행자신감 및 실습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포함한 포괄적인 반복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 자기효능감, 기본간호술수행자신감과 같은 내적 요인과 실습만족도의 외적 요인을 모두 고려해 연구하였다는 것이다. 우선 간호대학생의 학습 자기효능감과 기본간호술수행자신감, 실습만족도를 증진시킴으로 전공만족도를 높여 향후 임상실습과정 및 졸업, 졸업 후 간호제공자로서의 능숙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본 연구결과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부 지역 대학의 간호학과만 대상으로 편의 표집 함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지니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어진다.

## REFERENCES

- [1] M. J. Kim & K. J. Kang. (2016). The Influence of Calling, Work Values and Adaptation Resources on the Nursing Students. *The Korea Society Fisher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8(3), 667-677.  
DOI: 10.13000/JFMSE.2016.28.3.667
- [2] S. Y. Yun & M. S. Kim. (2014). A study on the relevance among Self efficacy, Major satisfaction, Nursing ethics values in Nursing students before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2), 363-372.  
DOI : 10.14400/JDC.2014.12.2.363
- [3] K. H. Yang, J. R. Lee & B. N. Park. (2012). Factors Affecting Adaptation to School Life of Freshmen Enrolled in Nursing at a Junior Colleg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1), 5-13.  
DOI : 10.5977/jkasne.2012.18.1.005
- [4] E. K. Jeong et al. (2011). The relation between nursing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their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Ewha nursing*, (45), 29-44.
- [5] S. O. Kim & H. S. Kim. (2014). Effects of Psychiatric Nursing Practicum using Simulated Patients on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Learning Self-Efficacy, Satisfaction of Learning.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2), 396-408.  
DOI : 10.5392/JKCA.2014.14.02.396
- [6] Y. H. Kim. (2018). The Effects of Core Fundamental Nursing Program on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Competency, Clinical Competency and Problem Solving Proces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9), 362-373.  
DOI : 10.5762/KAIS.2018.19.9.362
- [7] H. S. Song & S. H. Lim. (2016). A Study on Multiple Sources Evaluation for Practical Education in the Core Basic Nursing Skills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1), 5-13.  
DOI : <http://dx.doi.org/10.5977/jkasne.2016.22.1.5>
- [8] S. I. Ryu & A. K. Kim. (2017). The Effects of Bloom's Mastery Learning Model on Academic Self-Efficacy, Learning Satisfaction, and Nursing Skills Performan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2), 499-508.  
DOI : 10.5392/JKCA.2017.17.02.499
- [9] B. J. Zimmerman, A. Bandura & M. Martinez-Ponz. (1992). Self-Motivation for Academic Attainment: The Role of Self-Efficacy Beliefs and Personal Goal Setting.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9(3), 663-676.
- [10] S. R. Song. (2013). *The Effect of Self-Evaluation Method Using Video Recording on Competency in Nursing Skill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Problem Solving Ability, and Academic Self-Efficacy*.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11] S. O. Kim & B. H. Kang. (2016). The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Learning Experience, Recognition of Importance and Learning Self-efficacy for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on their Self-confidence.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8), 172-182.  
DOI : 10.5762/KAIS.2016.17.8.172
- [12] I. S. Lee & C. S. Park. (2015). Factors Influencing Confidence in Performance Competen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by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22(3), 297-307.  
DOI : 10.7739/jkafn.2015.22.3.297
- [13] E. J. Shin. (2008). A Study Related to Self-Efficacy, Satisfaction with Practice and Fundamentals of Nursing Practicum.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15(3), 380-386.
- [14] S. C. Jang. (2003). *(A) Typology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and Analysis of Related Personal and Cognitive Variables*. Doctoral dissertation. KonKul University, Seoul.
- [15] Y. S. Kang & S. K. Hwang. (2013). Correlation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otivation in Colleg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7), 3301-3309.  
DOI : 10.5762/KAIS.2013.14.7.3301
- [16] M. R. Lee & M. J. Kim. (2018). The Influences of College Adaptation, Satisfaction of Major and Clinical Practice on Vocational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6), 197-208.  
DOI : 10.5762/KAIS.2018.19.6.197
- [17] S. O. Shin. (2017). Relation among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Clinical Practice Course Satisfaction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6), 19-24.  
DOI : 10.5762/KAIS.2018.19.6.197
- [18] M. J. Chae & H. J. Jung. (2016).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n the Relation between Satisfaction with Major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10(3), 213-222.  
DOI : 10.12811/kshsm.2016.10.3.213
- [19] H. W. Ayres. (2005). *Factors related to motivation to learn and motivation to transfer learning in a nursing population*. Doctoral dissertation. North Carolina

- State University, USA.
- [20] S. Y. Park & Y. R. Kweon. (2012). The effect of using standardized patients in psychiatric nursing practical training for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1(1), 79–88.
- [21]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7). *Core basic nursing skill items*. <http://www.kabone.or.kr/>
- [22] M. S. Yoo & I. Y. Yoo. (2001). The effectiveness of Standardized Patient Managed Instruction for a Fundamentals of Nursing Course. *Journal of nursing query*, 10(1), 89–109.
- [23] E. H. Chang & S. H. Park. (2017). Effects of Self-evaluation using Smartphone Recording on Nursing Students' Competency in Nursing Skills, Satisfaction, and Learning Motivations: Focusing on Foley Catheteriz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4(2), 118–127. DOI : 10.7739/jkafn.2017.24.2.118
- [24] K. H. Kim & H. S. Ha. (2000).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 7–20.
- [25] D. J. Kim & J. S. Lee. (2014).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elf-Efficacy on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 244–254. DOI : 10.5977/jkasne.2014.20.2.244
- [26] M. R. Jung & E. Jeong. (2018). Effects of E-book-based Flipped Learning Education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18(2), 490–501. DOI : 10.5392/JKCA.2018.18.02.490
- [27] S. H. Kim, J. Y. Choi & Y. R. Kweon. (2017). Effects of the Introductory Clinical Nursing Practicum on the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of Nursing Skills, Confidence in Nursing Skill Performance, Self-efficacy in Learning, and Transfer Intension of Nursing Students. *Nursing & Health Issues*, 22(1), 40–48.
- [28] I. S. Park & E. K. Shin. (2017). *The influence of career identity on their stress coping style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nursing students*. *Health Service Management Review*, 10(4), 41–53. DOI : 10.18014/hsmr.2016.10.4.41
- [29] S. M. Ahn & K. H. Kim. (2018). The Influence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roblem Solving Ability and Job-seeking Stress on Nursing Students' Career Matur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1), 555–565. DOI : 10.5762/KAIS.2018.19.1.555
- [30] R. W. Ma & E. J. Lee. (2017). Factors Affecting Academic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10), 521–531. DOI : 10.14257/ajmahs.2017.10.90
- [31] Y. S. Kim, E. J. Jo, E. J. Choi & J. W. Han. (2018). *Effect of Reeducation of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Self-Efficacy and Self-Confidence of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Wholistic Nursing Science*, 11(-), 50–58.
- [32] H. Y. Jung & S. Kang. (2018). The Influence of Recognition of Importance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n Confidence in Performance of Basic Nursing Skills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6), 241–250. DOI : 10.14400/JDC.2018.16.6.241
- [33] G. H. Park & S. H. Choi. (2016). Effects of Open Laboratory Self-directed Practice on Knowledge, Self-confidence, Skill Competency, and Satisfaction of Intravenous Infus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1), 63–71. DOI : 10.5977/jkasne.2016.22.1.63
- [34] S. Y. Yun & S. H. Choi. (2016). Effects of Open Laboratory Self-directed Practice on Knowledge, Self-confidence, and Skill Competency of Intramuscular Injec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5), 412–420. DOI : 10.5762/KAIS.2016.17.5.412
- [35] E. H. Chang & S. H. Park. (2017). Effects of Self-evaluation using Smartphone Recording on Nursing Students' Competency in Nursing Skills, Satisfaction, and Learning Motivations: Focusing on Foley Catheteriz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4(2), 118–127. DOI : 10.7739/jkafn.2017.24.2.118
- [36] K. M. Lim, H. Y. Kim & G. J. Park. (2017). The Influence of Nurse Image and Major Satisfaction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Mal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10), 423–431. DOI : 10.5762/KAIS.2017.18.10.423
- [37] J. H. Yoo & H. J. Choi. (201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ping,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3), 553–561. DOI : 10.5762/KAIS.2019.20.3.553
- [38] H. S. Yu. (2015). Relationship among Stress of Clinical Practice, Practice Satisfac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2), 1129–1144.
- [39] M. R. Lee & H. S. Jeon. (2019). Influencing Factors of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in the Convergence Era.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5), 55-64.  
DOI : 10.22156/CS4SMB.2019.9.5.055

- [40] A. K. Kim & R. W. Kim. (2018). Effects of Self Reflective Practice using Cellular Phone Video Recordings on Self-Confidence in Performance, Practice Satisfaction, Learning Self-efficacy and Core Basic Nursing Skills Achievement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11), 665-678.  
DOI : 10.5392/JKCA.2018.18.11.665
- [41] M. G. Kim & H. S. Lee. (2017). Effects of Core Basic Nursing Education using Cellular Phone Video Recordings on Self-confidence in Performance, Achievement, and Practice Satisfaction.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24(2), 128-137.  
DOI : 10.7739/jkafn.2017.24.2.128
- [42] Y. M. Cho & J. K. Kim. (2019). The Influence of Sense of Humor by Instructors and Learning Motivation upon Major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19(1), 350-358.  
DOI : 10.5392/JKCA.2019.19.01.350
- [43] S. J. Han. (2013).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Attitude Matur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25(5), 559-566.  
DOI : 10.7475/kjan.2013.25.5.559
- [44] K. M. Yang. (2017). The Relationship among Professional Self-concept,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2), 445-453.  
DOI : 10.14400/JDC.2017.15.12.445
- [45] Y. H. Kim. (2016).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on College Lif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a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1), 104-113.  
DOI : 10.5762/KAIS.2016.17.11.104
- [46] J. H. Park, H. J. Song & B. Y. Lee. (2018). The Influences of Ethical propensity, Self-esteem and Clinical satisfaction on Major satisfac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6), 261-269.  
DOI : 10.15207/JKCS.2018.9.6.261
- [47] K. A. Shin, H. S. Kim & S. K. Lee. (2019).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Major Satisfaction Based on the Survey of Satisfaction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 Students on Clinical Practice. *Korean Journal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 51(2), 252-259.  
DOI : 10.15324/kjcls.2019

이 현 숙(Hyunsook Zin Lee) [장학원]



- 2002년 8월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학석사)
- 2016년 2월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경동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간호관리, 의료커뮤니케이

선, 간호리더십  
· E-Mail : zinhslee@gmail.com

안 성 미(Sung Mi Ahn) [장학원]



- 2014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관리학과(보건학석사)
- 2018년 8월 : 2018년 8월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5년 8월 ~ 2016년 2월 : 강동대학교 간호학과 초빙교수
- 2016년 3월 ~ 2019년 12월 : 강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20년 4월 ~ 현재 : 동남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기본간호, 핵심기본간호, 지역사회간호  
· E-Mail : pigletasm@hanmail.net